

동아시아 散·韻 혼합담론의 始原으로서의 『春秋左氏傳』에 관한 연구

辛 恩 卿*

Ⅰ 국문초록 Ⅰ

본 연구는 산문과 운문을 섞어 하나의 담론을 구성하는 방식이 동아시아 고전 담론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라고 보고 그 始原 내지 祖型이 되는 담론형태를 모색하는 것에 1차적 목표를 두었다. 그간 이런 서술방식의 기원을 두고 인도문학의 보편적 특징이 佛經을 통해 중국에 전해지고 이것이 講經文·變文과 같은 돈황 강창문학의 형태를 탄생시켰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정설이 되어 왔다. 그러나,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담론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형태의 산·운 혼합서술 방식의 기원을 강창문학 하나로 귀착시키는 일원론적 관점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생각하에 『춘추좌씨전』을 여러 기원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서부가형, 시화형, 열전형, 주석형, 시삽입형, 복합형 등 산·운 혼합담론에 대한 필자에 의한 분류에 의거할 때 『춘추좌씨전』은 모든 산·운 혼합담론의 최초의 예가 됨과 동시에 주석형과 시삽입형의 始原으로, 열전형의 雛形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구명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중 『좌전』이 지니는 서사체 시삽입형 혼합담론의 측면에 논의를 집중하였다. 『좌전』에 삽입된 운문은 서사 속 인물에 의하여 새로 창작된 것보다는 기존의 것 특히 『시경』의 시구를 인용하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 산문과 운문의 내용은 중복되지 않고 繼起的 관계에 놓이면서 서사 전개에 기여한다.

서사체 시삽입형 혼합담론의 한 祖宗으로서의 『춘추좌씨전』은 漢代의 『신서』나 『설원』, 위진남북조 시대의 志怪, 唐代의 傳奇 등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 담론들은 같은 서사체 시삽입형 혼합담론에 속하는 강창문학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므로 이를 ‘좌전계’로 묶어 ‘강창계’와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춘추좌씨전, 산·운 혼합담론, 주석형, 열전형, 서사체 시삽입형, 詩經, 左傳系, 講唱系

Ⅰ 목 차 Ⅰ

- | | |
|--------------------|------------------------------------|
| I. 머리말 | Ⅲ. 『春秋左氏傳』의 散·韻 혼합서술의 제 양상 |
| Ⅱ. 『春秋左氏傳』의 담론적 성격 | Ⅳ. 『春秋左氏傳』과 後代의 散·韻 혼합담론: 맺음말을 곁하여 |

* 우석대학교 교수 / fnsek@woosuk.ac.kr

I. 머리말

산문과 운문¹⁾을 섞어 하나의 담론을 구성하는 방식은 동서고금의 글에서 두루 발견되는 현상이지만 특히 동아시아 고전 담론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문체의 기원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보면, 인도문학의 보편적 특징이 佛經을 통해 중국에 전해지고 이것이 講經文·變文과 같은 돈황 강창문학의 형태를 탄생시켰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정설이다. ‘講唱’이라는 용어를 講說과 歌唱을 섞어 줄거리를 엮어가는 연행예술의 형태로 이해한다면 ‘강창이 唐代에 들어와 성행했다’는 언급이라든가 ‘唐代에 성행한 변문을 최초의 강창으로 보는 관점’²⁾ 등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산문과 운문을 섞어 담론을 구성하는 ‘문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唐代의 변문을 散·韻 혼합서술 문체의 효시로 본다거나 이 문체가 당대에 들어와 형성·발전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여기서 한 발 양보하여 ‘당 이전에도 六朝시대의 志怪로 분류되는 작품들에는 더러 산문에 운문이 삽입되기도 했고 이것이 唐代 傳奇에서 크게 성행했다’라고 하여 지괴와 전기를 산·운 혼합서술 문체의 기원으로 내세운다 해도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산문과 운문의 결합 내지 교직으로 하나의 담론이 구성되는 예는 강창문학이나 傳奇가 발달·성행한 唐이나, 志怪가 성행한 육조시대보다 훨씬 이전 시기의 담론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인물 간에 일상언어와 노래를 섞어 대화를 이어나가는 예는 일찍이 『書經』, 『虞書·益稷』의 순임금과 皋陶에게서 그 최초의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漢代 劉向이 지은 인물전기라 할 『列女傳』이나 『列仙傳』, 筆記類 故事選集이라 할 『新序』와 『說苑』 또한 그 구체적 양상은 다르지만 명백히 산문과 운문을 섞어 담론을 구성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사성을 띠는 序를 并記한 뒤 本辭를 서술하는 것이 보편화된 漢代의 賦나 『韓詩外傳』, 『呂氏春秋』, 『晏子春秋』 등도 산·운 혼합담론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³⁾

그런데 이 산·운 혼합담론들은 필자의 유형분류에 의하면⁴⁾ 『열선전』과 『열녀전』은 ‘열전형’에, 『한시외전』은 ‘주석형’에, 서를 병기한 한부는 ‘서부가형’에, 그리고 『설원』과 『신서』, 『呂氏春秋』, 『晏子春秋』 등은 ‘시삽입형’에 속한다.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형태의 혼합담론들이 존재하는데 『花郎世紀』⁵⁾ 『三綱行實圖』와 같은 것은 ‘열전형’, 『용비어천가』, 『신증동국여지승람』, 『월인석보』와 같은

1) 엄밀히 말해 운문과 시는 다르지만 앞으로 본고에서 이 둘을 혼용하기로 한다.

2) 김학주, 『中國文學概論』, 신아사, 1992, p.355.

3) 이후 본고에서 사용되는 ‘혼합담론’이라는 말은 ‘산·운 혼합담론’을 약칭한 것을 가리킨다.

4) 산·운 혼합담론의 유형에 대해서는 줄고, 『散·韻 혼합담론의 유형과 양상: 『秋齋紀異』를 중심으로』(『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8집, 2008.) 참고. 이 논문에서 필자는 산·운 혼합담론을 서부가형, 열전형, 시화형, 시삽입형, 주석형, 복합형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5) 逸書로 알려졌던 김대문의 『화랑세기』가 1980년대에 발견된 후 사학계에서는 이 책의 眞僞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책을 眞書로 확정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필자는 진서로 보는 입장에 서 있기에 『화랑세기』를 산·운 혼합담론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화랑세기』는 역대 통월주의 전기를 서술한 뒤 본문과 世系 사이에 4언으로 된 贊을 붙이고 있어 열전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면에서

것은 ‘주석형’, 『三國遺事』, 『殊異傳』 중의 「최치원전」, 『금오신화』, 『옥루몽』 등은 ‘서사체 시삽입형’, 『往五天竺國傳』, 『汕行日記』, 『을병연행록』 등처럼 시를 포함한 기행문학은 ‘비서사체 시삽입형’⁶⁾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古事記』나 『日本書紀』 및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를 비롯한 각종 모노가타리 등은 서사체 시삽입형, 『枕草子』와 같은 수필, 각종 일기문학, 『오쿠노 호소미치』(『奥の細道』)와 같은 기행문학은 비서사체 시삽입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처럼 산·운 혼합서술문체는 시대별·나라별·유형별로 다양한 면모를 보이므로 산·운 혼합의 방식이나 유형, 기원 등에 대한 총체적이고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같은 다양성을 간과하고 혼합담론의 기원을 강창문학 하나로 귀결시키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혼합담론 중에는 宋代의 涯詞나 陶眞, 元代의 雜劇, 明代의 話本, 清代의 회장체 소설, 그리고 우리나라의 판소리처럼 직접적 영향을 받았든 간접적 영향을 받았든간에 명백하게 강창문학의 계보로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 이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혼합담론의 기원을 하나로 귀결시키는 單元論的 관점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본고는 春秋三傳 중의 하나인 『春秋左氏傳』⁷⁾을 산·운 혼합담론의 한 始原으로 제시함으로써 多元論的 관점을 지향하고자 한다. 다원론적 관점은 돈황 강창문학이나 『좌전』 외에도 다른 종류의 祖型을 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과 융통성을 전제한다. 또한 이 관점은 다양한 ‘종류’의 조형을 제시함과 더불어 후대의 혼합담론들의 형성·발전에 있어 여러 종류의 조형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전제함으로써 ‘영향’의 다원성까지도 고려하는 입장이다. 혼합담론의 기원과 관련하여 필자는 『좌전』을 주석형과 서사체 시삽입형의 始原 내지 嚆矢로, 열전형의 雛形으로 본다. 열전형에 대하여 ‘雛形’이라는 말을 쓴 것은 『좌전』에서 열전형의 편린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열전형 혼합담론의 효시 내지 시원은 漢代 劉向의 『列女傳』이다. 또한 『좌전』은 모든 유형의 혼합담론들을 총괄하여 보았을 때 산문과 운문을 섞어 담론을 구성한 최초의 예가 되기에, 주석형과 서사체 시삽입형의 시원인 동시에 산·운 혼합담론의 시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일상언어와 노래를 섞어 대화를 이어나가는 예는 『書經』, 『虞書·益稷』에서 그 최초의 용례를 찾아볼 수 있지만, 이 한 예를 가지고 『서경』을 최초의 혼합담론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필자는 『좌전』을 동아시아 혼합담론의 효시로 보고자 한다.

Ⅱ. 『春秋左氏傳』의 담론적 성격

『좌전』을 후대의 산·운 혼합담론의 여러 祖宗들 중 하나로 보고 그 구체적 양상을 살피기 전에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6) 시삽입형 혼합담론 중에는 산문 부분이 서사적 성격을 띠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뉘는, 전자를 ‘서사체 시삽입형 혼합담론’, 후자를 ‘비서사체 시삽입형 혼합담론’으로 부를 수 있다.

7) 이하 『춘추좌씨전』은 『左傳』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좌전』이 어떤 성격의 담론⁸⁾인가부터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敍事談論’으로서의 성격

『춘추좌씨전』은魯나라의 역사기록인『春秋』에 대한 주석 혹은 해설의 성격을 띠는 책이다. 원래『춘추』는 노나라의 史官이 기록해 놓은 역사적 사실을 공자가 정리한 것으로 儒家 경전의 하나로 추앙되어 왔다.『춘추』는 노 隱公 元年(B.C. 722년)부터 哀公 14년(B.C. 481년)까지 노나라의 열 두 명의 제후가 통치했던 시기의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간략히 서술한 편년체의 역사 기록이다.

○元年春 王正月

○三月 公及邾儀父盟于蔑

○夏五月 鄭伯克段于鄆

위 隱公 元年의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춘추』의 기록은 단순한 史實의 나열로서 역사서술이라기 보다는 역사서술을 위한 자료 즉 史料에 가깝다. 이같은 史實이나 정보의 나열만으로는 공자의 사상이나 교훈, 진의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원문을 자세히 풀이하고 설명하는 주석서들이 출현했는데 그것이 이른바 春秋三傳으로 일컬어지는『春秋左氏傳』,『春秋穀梁傳』,『春秋公羊傳』이다. 이중『곡량전』과『공양전』은 해석학적·훈고학적 입장에서 문자 표현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밝혀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좌전』은 해석보다는『춘추』에 기록된 사건의 배경과 세부적 사항을 설명·서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⁹⁾ 그러므로 三傳간의 이런 차이를 朱子は,『좌전』은 史學이고『곡량전』과『공양전』은 經學이라고 구분했던 것이다.

『좌전』의 구성방식을 보면, 첫 머리에 시간적 순서에 따라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춘추』원문—이를 보통 經文이라 함—을 제시한 뒤 해당 사건들의 전말을 자세히 보충 설명하는 글—이를 보통 傳文이라 함—을 덧붙이는 체제로 되어 있는데, 傳 부분은 경문 조목을 간단히 보충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 짧은 이야기, 때로는 장편의 이야기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처럼 연대기적 기록에 덧붙여 경전 기록의 이면에 숨어 있는 내용들을 구체화시켜 주는 일련의 독립적 이야기들을 ‘敍事短篇’으로 부르기도 하는데¹⁰⁾ 이런 이야기들의 존재는『좌전』을 다른 두 주석

8) 여기서 말하는 담론이란 ‘discourse’의 역어로서 텍스트(text)와 구분되는 용어이다. 텍스트가 주로 문자로 ‘쓰여진 것’을 가리키는 반면, 담론은 ‘말해진 것’까지를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또한 텍스트는 작자에 의해 의미가 ‘부여된’, 말하자면 폐쇄된 구조의 성격을 띠는 반면, 담론은 청자나 독자에 의해 의미가 ‘발견되는’ 열려진 구조의 성격을 띤다.『좌전』을 비롯한 춘추삼전은『춘추』라는 ‘텍스트’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그 의미를 발견하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자신이 발견한 것을 주장하는 ‘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요근래는 이런 차이에 의미를 두지 않고 양자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9) 루샤오팅, 조미원·박계화·손수영 옮김,『역사에서 허구로: 중국의 서사학』, 길, 2001, pp.98~99; 서경호,『중국소설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2006, p.94.

10) 루샤오팅, 앞의 책.

서와 변별되게 하는 중요한 특징이 된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을 ‘서사담론’으로 부르고, 나아가 『좌전』을 하나의 서사담론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실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중국의 고대 담론에 대하여 ‘서사’나 ‘허구’ ‘역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문제에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에는 그 나름대로 문학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서구적 개념의 ‘서사’라는 용어가 없었고, 서사적 글쓰기의 전체 범위를 포괄하는 말로는 ‘史’라는 말이 선택되었다.¹¹⁾ 따라서 중국 전통에서 서구의 서사라는 장르 범주에 가장 가까운 것은 ‘역사’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중국 고전 담론을 대상으로 ‘서사’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역사 혹은 허구로 분류되는 저작물을 모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같은 중국의 전통을 포괄하기 위해 루샤오펑은 ‘역사서사’(historical narrative)와 ‘허구서사’(fictional narrative)를 구분했던 것이다.¹²⁾ 루샤오펑의 분류대로 한다면 『좌전』은 ‘역사서사’로 규정될 수 있다.

『좌전』을 서사담론으로 보는 데 있어 두 번째로 전제되어야 할 점은 역사 서술에도 상상력이 개입된다는 사실이다. 앞의 예에서 보았듯 『춘추』는 기록한 사건에 대한 아무런 역사적 배경의 설명도 없는, 정보와 사실의 나열에 불과하다. 이것이 『좌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상세하고 풍부한 내용을 갖춘 기록이 되는 과정에는 다른 문헌기록, 구두전승을 통해 축적된 다양한 정보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겠지만, 무엇보다 『좌전』 작자의 상상력도 한 몫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¹³⁾ 『좌전』이 쓰여진 戰國時代에 이르면 애초의 ‘사실’에 많은 주변 정보가 합쳐져서 역사는 더 이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설명으로 발전하게 된다.¹⁴⁾ 이것은 이 시기의 문장 구성 능력이 춘추시대보다 더욱 완숙해지고 발전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정보 중에는 단편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이야기도 포함되었을 것이며 『좌전』의 작자는 이 정보들을 자신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춘추』의 기록을 보충·설명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 작자의 주관과 상상력이 개입했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말하자면 『좌전』은 『춘추』 관련 정보에 대한 작자의 주관적 해석에 기대어 사실을 ‘나열’하는 단계로부터 역사적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단계로 나아갔던 것이다.

허구의 본질을 상상력이라 한다면, 『좌전』의 성립에 이미 허구의 요소가 어느 정도는 내재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좌전』만이 아닌 모든 역사서의 특성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국의 전통적 담론에서는 허구와 역사가 서로 얽혀 서술되는 현상은 매우 보편적인 것이며, 어떤 면에서 모든 담론은 ‘허구’와 ‘역사’를 양 극단으로 하는 스펙트럼 안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역사와 허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인 것이다.

셋째, 『좌전』을 서사담론으로 규정할 때 이를 성립시킨 주체¹⁵⁾를 뭐라 불러야 할 것인가의 문제

11) 루샤오펑은 앞의 책 1장과 2장에서 서구와 중국의 ‘서사’ ‘역사’ ‘소설’을 둘러싼 용어의 재정립을 시도했다.

12) 루샤오펑, 앞의 책 1장과 2장.

13) Tso-chiu Ming, *The Tso Chuan: Selections from China's Oldest Narrative History*, trans. Burton Wats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9, Introduction, xv.

14) 서경호, 앞의 책, p.95.

15) 『좌전』의 작자에 대해서는魯나라의 左丘明이 지었다고 보는 설과, 공자 제자인 子夏의 춘추학에 영향을 받은 魏

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롤랑 바르트는 중세기 작가를, 아무 것도 덧붙이지 않고 베끼기만 하는 轉寫者(scriptor), 자신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덧붙일 수 있는 編纂者(compilator), 원전을 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註釋者(commentator), 판 사람이 생각한 것에 기대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감히 발표하는 著者(author) 이 넷으로 분류¹⁶⁾하였는데 『좌전』의 경우를 살펴에 있어 이 분류가 도움이 된다. 일반 허구적 서사의 작자를 온전히 ‘저자’로 부르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역사서사인 『좌전』의 경우 그 작자를 ‘저자’로 규정할 수는 없다. ‘저자’는 판 사람의 생각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하며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데 주안점을 두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좌전』의 작자를 『공양전』이나 『곡량전』의 작자처럼 ‘주석자’로만 규정할 수도 없다. 『좌전』의 작자가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정도는 이미 단순한 주석자의 단계를 넘어서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저자와 주석자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존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좌전』은 오늘날의 서사이론에 비추어 볼 때도 서사장르의 범주에 귀속될 수 있는 충분한 내적 근거를 지닌다. 『좌전』을 서사담론으로 보고 연구하는 관점은 서구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John Wang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¹⁷⁾ 보통 인물·시점·플롯을 서사의 3요소라 하는데 먼저 『좌전』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임금이나 왕의 인척, 경대부, 왕의 측근 등 지배층이 서사의 중심이 된다. 일반 백성이나 변방의 낮은 벼슬아치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존재들이다. 다시 말해 主 인물의 행위나 그들이 펼치는 사건들을 돋보이게 하는 從的·附隨的 존재들인 것이다. 오직 사건의 主動 인물들만이 이름이 명시될 뿐이다.

시점의 측면을 볼 때, 『좌전』에서 주 인물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건들은 철저하게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객관적 사실, 즉 제3자가 관찰할 수 있는 것만이 묘사될 뿐 인물의 내면심리나 마음 속의 眞意 등은 서술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나는 객관적 사실만 묘사한다는 것은 실제 그 사건이 ‘진실’이나 하는 것과는 별도의 문제이다. 이같은 3인칭 관찰자 시점에 의한 사건 서술은 모든 역사서사의 공통분모라 할 수 있다. 시점과 관련하여 『좌전』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때때로 서사 말미에 ‘君子’가 등장하여 어떤 사건과 인물에 대해 논평을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군자는 작자 자신을 가리킨다. 이같은 서술 패턴은 후대에 사마천의 『사기』에서 자신을 ‘太史公’으로 칭하며 사건과 인물에 대해 議論하는 체제의 모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서술자 내지 화자가 1인칭으로 자신을 가리키는 서사 기법은 한참 후대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군자왕’ 부분은 표면상 ‘군자’라는 제3의 인물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으로서 명백히 서사 속 인물과는 구분되며 이같은 시점의 轉換은 ‘액자

나라의 사관 左某氏가 기원전 320년을 전후하여 지었다는 설로 나뉜다(『春秋左氏傳』(『完譯版 四書五經』 11, 삼성문화사, 1993, 해제). 또한 한나라에 들어와 그 내용에 수정과 가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서한 말엽 劉歆의 위작설까지 제기되고 있다(김학주, 『中國古代文學史』, 명문당, 2003, p.124).

16) 김현, 『한국문학의 위상/문학사회학』, 『김현 문학전집』 1, 문학과 지성사, 1991·2005, p.41에서 재인용.

17) John C. Y. Wang, “Early Chinese Narrative: The *Tso-chuan* as Example,” *Chinese Narrative*, ed. Andrew H. Plaks, with a foreword by Cyril Birc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형' 서술의 원초적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좌전』에서는 어떤 한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서술할 때 “初”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예가 많은데 ‘初’라는 말은 ‘처음’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앞서일어난 時點을 의미한다. 사건이 실제 일어난 순서대로 기술하지 않고 어떤 효과—그것이 美的 효과이든 실용적 효과이든—를 위해 사건의 순서를 바꾸거나 재배열하여 서술하는 기법을 ‘플롯’이라 할 때 『좌전』에는 명백히 플롯의 기법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좌전』은 본래 『춘추』와는 별도로 춘추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左氏春秋』였는데 후에 『춘추』를 해설하는 자료로 전용되면서 『춘추좌씨전』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견해¹⁸⁾까지 고려한다면, 그것은 원래의 이야기가 『춘추』의 해당 연도 아래로 나누어져 삽입되는 과정에서 사건의 재구성 및 재배열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또한 플롯 개념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전제들을 바탕으로 『좌전』을 ‘서사담론’으로, 여기에 포함된 개별 이야기들을 ‘서사단편’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2. ‘多聲談論’으로서의 성격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 외에, 『곡량전』이나 『공양전』과는 다른 『좌전』의 특징으로서 『易經』, 『書經』, 『詩經』의 인용이 빈번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점은 『좌전』이 씌어질 당시 이미 三經의 원본이 있어 그것들이 『좌전』의 인물의 말 안에 인용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¹⁹⁾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시경』의 인용이다.

『좌전』과 『國語』²⁰⁾를 보면 춘추시대에 제후나 卿大夫 등 지배층 인물들이 궁정 회합이나 외국의 사신을 영접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심중 의도를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언어를 써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대신, 『시경』의 일부 구절을 빌려와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관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같은 풍속이 유행한 것은 시가 지닌 애매성·간접성으로 인해 청자가 화자의 말에 반응함에 있어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고 양자 간에 형성될 수도 있는 직접적 갈등의 여지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²¹⁾

18) 劉逢祿에 의해 제기된 설, 김학주, 앞의 책, pp.124~125에서 재인용. 버튼 왓슨과 루샤오펑도 『좌전』의 서사 단편들이 원래는 완전한 하나의 이야기였는데 나중—漢代—에 『춘추』의 해당 연도 아래로 나누어져 삽입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劉逢祿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Tso-chiu Ming, op.cit., Burton Watson의 Introduction xiii 및 루샤오펑, 앞의 책, p.100.(주 2)

19) 竹內照夫 譯註, 『春秋左氏傳』, 東京: 集英社, 1974·1983, 해제.

20) 『국어』는 춘추시대 左丘明이 편찬한 것이라고 전해지는데 B.C. 1000년 무렵부터 B.C. 453년 무렵까지 즉 周의 穆王부터 晉나라 知氏의 멸망까지 약 550년간의 周·魯·齊·晉·鄭·楚·吳·越의 여덟 나라의 일을 대화체로 기록한 것이다. 『좌전』이 『春秋經』에 대한 직접적 해설서의 성격을 지니는 반면, 『국어』는 간접적인 참고서의 성격을 띠므로 보통 전자를 ‘春秋內傳’이라 하는 것에 대하여 후자를 ‘春秋外傳’이라 일컫고 있다.

21) Tam, Koo-Yin, “The Use of Poetry in Tso Chuan: an Analysis of the ‘Fu-Shih’ Practice,” University of Washington, Ph.D Thesis, U.M.I., 1988. Ch.1, Ch.3, pp.299~301.

자신의 견해를 표명함에 있어 기존의 담론에 의존하는 것은, 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역사상 존재한 모든 담론의 본질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바흐진은 모든 담론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 같은 속성을 ‘多聲性’ ‘對話’라는 용어로 포괄하여 설명하였는데²²⁾, 이런 점에서 볼 때 『좌전』은 담론이 지니는 다성적 속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최초의 담론이 아닐까 생각한다.

공식석상에서 정치·외교적 목적으로 『시경』의 시구를 읊는 관행이 『좌전』이나 『국어』와 같은 기록으로 문자화되면서 그 형태는 산문 서술 간간이 운문을 삽입하는 서술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이 점은 본고의 논지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시사한다. 하나는 『좌전』이나 『국어』에서 보이는 그같은 서술방식은 다름아닌 산·운 혼합담론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말의 형태와 운문의 형태를 섞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지배층에서 비롯된 發話 관행이었다면, 산문과 운문을 섞어 문장을 기술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지식층의 글쓰기 방식에서 비롯된 담론 특성이라는 사실이다. 민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나 노래는 口頭로 유포·전승된다는 점에서, 기억과 암기에 용이하게 이야기면 이야기, 노래면 노래 이처럼 단순한 방식으로 담론이 형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두 전승들을 지식층에 속하는 『좌전』의 작자가 수합하고 정리하여 문자기록화하면서 둘을 혼합하기도 하고 어느 부분을 첨가·생략하기도 하는 등의 손질을 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좌전』은 三經을 인용하는 서술 특징을 지닌다는 점에서 ‘다성 담론’의 가장 오래된 형태를 보여주고, 특히 『시경』의 빈번한 인용은 『좌전』을 ‘산·운 혼합담론’의 효시로 보기에 충분한 단서를 제공한다. 나아가 『좌전』은 산·운 혼합서술 문체가 지식층의 글쓰기의 소산임을 시사하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Ⅲ. 『春秋左氏傳』의 散·韻 혼합서술의 제 양상

이제 『좌전』을 ‘역사적 서사담론’으로 규정하고, 여기서 보이는 산·운 혼합서술의 측면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좌전』이 지닌 다양한 면모 중 본고는 지면관계상 ‘서사체 시삽입형’의 시원으로서의 면모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주석형·열전형으로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간략히 살피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1. ‘주석형’ ‘열전형’ 혼합담론으로서의 면모

동아시아 산·운 혼합담론의 효시로서 『좌전』을 논할 때, 다양한 형태의 산운 혼합서술의 양상이

22) 츠베탕 토도로프, 최현무 옮김, 『바흐진 : 문학사회학과 대화이론』, 까치글방, 1987; M. 바흐진, 『도스토예프스키 시학』, 정음사, 1988.

복합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좌전』은 『춘추』에 대한 주석서·해설서의 성격을 띠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주석형’ 혼합서술을 기본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주석형은 크게 본문과 주석문 사이에 산·운 결합이 있는 경우(‘가’형)와, 주석문 내에 산·운 결합이 있는 경우(‘나’형)로 나눌 수 있다. ‘가’형과 ‘나’형은 다시 본문이 산문이나 운문이나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형 : 본문과 주석문 사이에 산·운 결합이 있는 경우

(가-1) 본문(산문)+주석문(운문)

(가-2) 본문(운문)+주석문(산문)

‘나’형 : 주석문 내에서 산·운 결합이 있는 경우

(나-1) 본문(산문)+주석문(산운결합)

(나-2) 본문(운문)+주석문(산운결합)

‘가’형의 경우 대부분 (가-2)의 형태를 취한다. 『한시외전』이나 우리나라의 『용비어천가』, 『월인석보』 등을 그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나’형의 경우 대부분 (나-1)의 형태를 취한다. 『좌전』 또한 (나-1)형에 속한다. 즉, 본문 — 『춘추』 經文 — 에 대해 해설하고 설명하는 주석문 — 傳文 — 이 산·운 결합으로 되어 있는 양상이다.

또한 『좌전』은 불완전하나마 ‘열전형’ 혼합담론의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열전형은 첫 부분에서 어떤 인물의 가계와 인적 사항, 그리고 행적 및 활동상에 대해 서술을 하고 맨 끝에 운문으로 된 논평부를 붙여 그 인물의 행적이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제시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같은 서술방식이 하나의 패턴으로 정착된 것은 司馬遷(B.C. 145~86)의 『史記』, 「열전」에서 그 틀이 확립되었으나, 어떤 인물 및 그 인물을 둘러싼 사건에 대한 객관적 서술을 한 뒤 논평부에서 서술자의 주관적 견해를 가미하는 방식은 이미 『좌전』에서 시도되었다. 『춘추』는 편년체 역사기록이고 『좌전』 또한 큰 틀에서는 그 패턴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열전」에 못지 않은, 인물중심의 기록으로 발전되는 양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사건에는 반드시 主動 인물과 副 인물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서술하다 보면 자연히 특정 인물의 행적이 부각되어 『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은 紀傳體의 성격을 띠기 쉽다. 『좌전』에서는 어떤 사건을 둘러싼 특정 인물의 행적에 대하여 객관적인 서술을 한 뒤 아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君子曰”로 시작하는 논평부²³⁾를 붙여 작자 — 기록자 — 의 주관적 견해를 펼쳐 보이는 예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23) 「열전」, 『사기』의 경우 논평부는 “太史公曰”로 시작된다.

군자는 말한다. “穎考叔은 이를 데 없는 효자이다. 제 모친을 사랑하고 莊公에게까지도 모친을 사랑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시경』에 ‘효자는 효심이 끝이 없으니 하늘은 길이 너에게 좋은을 주리로다’ 하였는데, 이것은 穎考叔을 두고 한 말일 것이로다!” (『隱公 元年』)²⁴⁾

영고숙은 隱公 元年 기록에 나오는 인물로 莊公과 그의 모친인 姜氏의 오랜 불화를 화해로 이끈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孝心으로써 장공을 감동시켜 결국 장공으로 하여금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회복하도록 하였다. 영고숙의 효심에 관한 일화는, 장공과 강씨를 주 인물로 하는 전체 서사의 결말 부분에 등장하는데 그 부분만 독립시켜 보면 영고숙이라는 인물 略傳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뒤를 이어 작자의 분신인 ‘군자’는 『시경』의 시구를 끌어와 그에 대한 논평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大雅·既醉」의 제5장의 일부이다. 모든 논평부가 『시경』의 구절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문을 사용하여 인물의 행적을 논평하는 방식이 『좌전』에서 이미 하나의 서술패턴으로 자리잡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로 볼 때 『좌전』은 필자가 열전형으로 분류한 혼합서술 패턴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雛形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좌전』에서 보이는 산·운 혼합서술은 기본적으로 주석형에 속하며, 또 부분적으로 열전형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좌전』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혼합서술유형은 ‘시삽입형’이다.

2. ‘시삽입형’ 혼합담론으로서의 면모

(1) ‘시삽입형’ 혼합담론의 일반적 특성

‘시삽입형’은 산문과 운문 중 산문이 주가 되는 散主韻從의 형태로서 산문부가 서사적 성격을 띠는 것 즉 ‘서사체 시삽입형’과 그렇지 않은 것 즉 ‘비서사체 시삽입형’으로 대별되는데 『좌전』은 前者에 해당되므로 이에 국한하여 논하고자 한다.

‘서사체 시삽입형’ 혼합담론에서 운문의 위치는 고정적이지 않고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으며, 산문과 운문은 내용상 중복될 수도 있고 중복없이 내용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變文처럼 하나의 담론에서 운문이 차지하는 비중과 분량이 거의 대등한 경우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산문에 더 큰 비중이 놓인다.

산문 부분이 서사양식에 속하므로 여기에 삽입된 시는 서사시는 극히 드물고 거의 대부분 ‘서정시’에 속한다. 삽입시가 너무 많아 운문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이야기의 전개를 지연시키고

24) 君子曰, “穎考叔, 純孝也, 愛其母, 施及莊公. 詩曰, ‘孝子不置, 永錫爾類.’ 其是之謂乎” 이하 본고에서 인용되는 『좌전』의 원문 및 번역문은 竹內照夫 譯註, 『春秋左氏傳』, 東京: 集英社, 1974·1983; 『春秋左氏傳』, 『完譯版 四書五經』 11, 삼성문화사, 1993; 정대현 역주, 『春秋左氏傳』, 전통문화연구원, 2001에 의거하였다. 단 『좌전』 속의 『시경』 시구의 해석은 성백효 역주 『詩經集傳』(전통문화연구원, 1993)을 참고하였다.

서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서사에 속하는 산문과 서정에 속하는 운문은 相生의 관계에 놓이면서 극적 효과를 창출한다. 서사체를 중심으로 보면 서정시가 삽입됨으로써 인물의 감정 표현에 섬세함을 더할 수 있고, 서정시를 중심으로 보면 시가 發話되는 상황이나 맥락이 제시됨으로써 시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2) 삽입된 운문의 성격과 기능

1) 삽입 운문의 성격

『좌전』에 삽입된 운문의 성격은 다음 여러 기준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삽입된 맥락에 따라 사건 서술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논평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창작 여부에 따라 서사 속 인물에 의해 창작된 것과 이미 타인이 지어 놓은 시편을 인용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셋째, 운문 發話者의 신분에 따라, 대부·임금 등 지배층 인물에 의해 발해진 것과 백성·隱者·어린이 등 피지배층 혹은 민간계층 인물에 의해 발해진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발화자란 기존의 시편을 인용한 것이든 새로 창작한 것이든 시구를 발하는 존재를 가리킨다. 그런데 서사에서 지배층은 대부분 사건의 ‘主人物’로, 피지배층은 ‘副人物’로 설정되므로 운문 발화자에 따른 분류를 ‘지배층’ ‘피지배층’ 대신 ‘주인물’ ‘부인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넷째, 삽입된 운문의 종류에 따라 『시경』의 시구와 童謠, 민요적 성격의 노래, 自作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좌전』에 삽입된 운문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 (1) 서사 속 지배층 인물이 『시경』을 인용한 경우
- (2) “ 인물이 『시경』 이외의 운문을 인용한 경우
- (3) “ 인물이 자작시를 발하는 경우
- (4) 서사 속 피지배층 인물이 지어 부른 노래인 경우
- (5) “ 『시경』을 인용하는 경우(×)
- (6) “ 피지배층에 의해 지어진 노래를 인용하는 경우(×)
- (7) 논평자에 의해 『시경』이 인용되는 경우

『좌전』에 삽입된 운문은 위의 7가지 형태가 가능한데 기존의 시구를 인용하는 주체는 모두 지배층 인물이고 피지배층 인물이 대화 중에 기존의 시구를 인용한 예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5)와 6)를 제외한 다섯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먼저 (1)을 살펴 보면 인용된 『시경』 구절은 ‘大雅’가 73회, ‘小雅’가 86회, ‘頌’이 30회, ‘風’이 52회²⁵⁾로, 대아·소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시경』의 인용이 궁중이나 외교 사절의 접대 등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연스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좌전』의 운문 삽입 양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이다. (2)의 경우 『좌전』에 인용된 운문 중 『시경』 이외의 것은 ‘童謠’로서 총 2회 발견된다. (3)의 경우는 총 4회 발견되며 ‘莊公’과 그의 모친인 ‘姜氏’(「隱公 元年」), ‘士蔦’(「僖公 五年」), ‘聲伯’(「成公 17년」) 등에 의해 발해진 자작시이다. (4)도 총 4회의 예가 발견되는데 이 경우 백성들이 지어 부른 노래는 일종의 민요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 노래들은 “鄉人或歌之曰”(「昭公 12년」) “野人歌之曰”(「定公 4년」) “齊人因歌之曰”(「哀公 21년」) “萊人歌之曰”(「哀公 5년」)와 같은 文句 다음에 이어진다. (7)의 경우 논평은 ‘군자’나 ‘仲尼’(혹은 ‘孔子’)에 의해 행해지는데 이들 논평자에 의해 인용되는 운문은 오직 『시경』뿐이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좌전』에 “君子曰”이라는 어구는 총 49회 사용되었는데 이 중 『시경』 구절이 인용된 것은 20회이며, “君子謂”는 총 22회 사용되었고 이 중 『시경』 구절이 인용된 것이 7회이다. 논평의 성격을 띠는 “仲尼曰”(혹은 “孔子曰”)이라는 문구²⁶⁾는 28회이고 이 중 『시경』이 인용된 것은 6회이다. 이로 볼 때 논평 부분에 『시경』이 인용되는 비율은 약 33%이다. 그런데 ‘군자’에 의해 『시경』이 인용되는 것은 약 38%인 반면, ‘공자’에 의해 인용되는 것은 약 21%로 양자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논평 내용의 타당성과 권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굳이 다른 서책의 문구를 인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인용이든 창작이든 시를 발하는 존재는 지배층 인물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창작된 시편보다는 기존의 것을 인용하는 예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기존의 시구를 인용하는 경우 동요 2편의 예를 제외하면 모두 『시경』의 시구가 그 대상이 된다. 또한 논평 부분에서 ‘군자’나 ‘공자’에 의해 인용되는 운문은 예외없이 『시경』의 시구이다. 그렇다면, 서사체 시삽입형 혼합담론의 祖型으로서의 『좌전』에서 시의 삽입은 ‘지배층’에 의해 ‘시경’의 구절이 ‘인용’되는 양상이 주류를 이룬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2) 삽입 운문의 기능

『좌전』에 삽입된 운문의 기능은 크게 서사 속 인물에 의해 발해진 경우(1, 2, 3, 4)와 논평자에 의해 발해진 경우(7)에 따라 달라지는데, 前者의 경우 삽입된 운문은 ‘대화’의 기능을 행하며, 後者の 경우 서술된 사건에 대한 견해나 입장 표명, 서사 속 인물에 대한 褒貶 등 ‘議論’이나 ‘論評’의 기능을 행한다. 삽입된 운문의 기능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 보기로 한다.

25) 이 통계는 金鍾, 『『左傳』의 引詩賦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pp.515~519에 의거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논평부에서 ‘군자’에 의해 인용된 것을 ‘引詩’, 서사 속 인물에 의해 인용된 것을 ‘賦詩’, 크게 賦詩의 범주에 속하되 인물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는 ‘歌詩’로 구분하였고, 시 제목만 인용한 것도 포함하여 통계를 냈다. 그러나 引詩·賦詩·歌詩는 시가 발해지는 방식 — 연행방식 — 의 차이만 있는 것이고 시를 인용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창작시’에 대응되는 것, 다시 말해 기존의 시를 ‘인용’하는 경우로 통합하여 다루었다.

26) 『좌전』에는 사건 속의 한 인물로 공자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仲尼曰’은 논평자로서가 아니라 사건 속 인물의 발화에 해당한다.

진나라 獻公은 태자 申生을 죽인 이유를 갖추어 노나라에 보고하였다 이보다 앞서 현공은 士蔭에게 명하여 重耳와 夷吾를 위해서 蒲와 屈에 성을 쌓게 하였다. 그런데 士蔭은 그 공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잡목을 흙에 버무려 메꾸었다. 그래서 夷吾는 현공에게 호소하였다. 현공은 士蔭의 신중하지 못함을 책망하였다. 그러자 士蔭은 머리를 조아리며 “소생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초상이 없는데도 슬퍼하면 슬퍼해야 할 걱정거리가 반드시 찾아오며 전쟁이 없는데도 성을 쌓아 올리면 적이 반드시 그것을 보루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연히 적이 이용할 수 있는 보루 따위를 어찌 견고하게 쌓아 올릴 필요가 있겠나이까? 임금이 명한 관직에 있으면서 군명을 어긴다는 것은 不敬이요, 적의 보루를 견고하게 쌓아 올린다는 것도 不忠이옵니다. 충과 경을 잃고 어찌 임금을 섬기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경』에도 ‘덕을 품은 사람은 나라를 편안케 하며 / 宗子는 나라의 城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 덕을 갖추시고 宗子의 지위를 분명히 하신다면 이만한 성이 다시 어디 있겠습니까? 3년 안에 전쟁이 있을 것이니 무엇 때문에 신중히 성을 쌓겠습니까?” 하였다. 그는 물러나와 다음과 같이 시를 읊었다. “여우의 갓옷에 털이 어지럽도다. 한나라에 세 명의 公子가 있으니.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진나라에 난이 일어나자 현공은 寺人인 披에 명하여 重耳가 지키고 있던 蒲를 공격하게 하였다. 重耳는 “임금의 명령에는 대항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대항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라고 선포하고는 담을 넘어 도망쳤다. 披는 重耳의 소매 자락을 검으로 잘라냈으나 重耳는 그대로 翟으로 달아나고 말았다.²⁷⁾ (밑줄은 필자)

위 인용문은 『좌전』, 「僖公 五年」의 기록인데 “이보다 앞서”(“初”)의 앞 부분에 있는 ‘진나라 獻公은 태자 申生을 죽인 이유를 갖추어 노나라에 보고하였다’는 기록은 ‘희공 5년 봄에 진나라 임금 이 그 세자 申生을 죽였다’는 經文²⁸⁾에 대한 보충 설명에 해당한다.

위 사건의 전말은 「僖公 四年」조에 나와 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진나라 현공은 부인에게서 소생이 없자 부친의 애첩과 통하여 申生을 낳고 태자로 봉했다. 그 후 다시 오랑캐의 딸 두 사람을 비로 맞아들였는데 거기서 重耳와 夷吾를 얻었고, 다시 驪姬를 부인으로 맞이하여 거기서 奚齊가 태어났다. 여희는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만들기 위해 음모를 꾸며 태자 신생을 자살하게 만들었고 중이와 이오 또한 거짓으로 음해하여 변방으로 망명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다시 현공이 중이를 살해하려고 하자 중이는 마침내 狄²⁹⁾으로 도망치게 된다. 희공 4년조와 5년조의 두 이야기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경전 기록 이면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구체화시킴으로써 경전의 내용을 보충한다.

27) 晉侯使以殺太子申生之故來告。初，晉侯使士蔭爲二公子築蒲與屈，不慎，寘薪焉。夷吾訴之。公使讓之。士蔭稽首而對曰，“臣聞之，‘無喪而慙，憂必驕焉；無戎而城，驕必保焉。’寇驕之保，又何懼焉？守官廢命，不敬；固驕之保，不忠。失忠與敬，何以事君？詩云，‘懷德惟寧，宗子惟城。’君其修德而固宗子，何城如之？三年將尋師焉，焉用懼？”退而賦曰“狐裘尫茸，一國三公，吾誰適從？”及難，公使寺人披伐蒲。重耳曰，“君父之命不校。”乃徇曰，“校者，吾驕也。”踰垣而走。披斬其祛。遂出奔翟。(『僖公 五年』, 『좌전』)

28) ○五年春 晉侯殺其世子申生(『僖公 五年』, 『좌전』)

29) ‘翟’과 같다.

그러나 인용된 이야기만을 독립시켜도 한 편의 서사 단편이 성립되며, 희공 4년조의 내용은 위 이야기의 전개를 위한 부수적인 결가지로 작용한다. 위 이야기의 핵심은 ‘사위’라는 인물이 왜 자신이 섬기는 임금인 현공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드러내는 데에 있고 서사의 결말은 진나라의 미래에 대한 그의 예견이 적중한 것으로 맺어진다.

위의 이야기에는 두 편의 시가 삽입되어 있는데 두 편 모두 ‘士蔭’라는 主 인물에 의해 發話된 것이다. 하나는 『시경』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앞에서 제시한 삽입 운문의 다섯 유형 중 (1)에 해당하고, 다른 하나는 그의 自作詩로서 (3)에 해당한다. 먼저 첫 번째 삽입시부터 보면 이는 士蔭가 임금인 현공에게 간하는 대화의 일부로서 『시경』, 「大雅 生民之什」〈板〉8장 중 7장의 두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7장 全文은 아래와 같다.

큰 덕이 있는 사람은 나라의 울타리이며
 많은 무리는 나라의 담이며
 큰 제후국은 나라의 병풍이며
 강한 종족은 나라의 든든한 기둥이며
 덕을 품은 사람은 나라를 편안케 하는 이며
 宗子³⁰⁾는 나라의 城이니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
 혼자되어 두려운 일이 이르지 않도록 하라³⁰⁾

이 중 『좌전』에는 제5구와 6구가 인용, 삽입되어 있다. 毛序에서는 이 시의 大意를 ‘凡伯이 厲王을 풍자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제7장은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여섯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그 중 德이 근본이 됨을 말하고 있다. 『좌전』에는 이 여섯 가지 요소 중 제5구의 덕을 품은 사람(“懷德”)과 제6구의 ‘宗子’를 읊은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여기서 ‘덕을 품은 사람이 나라를 편안케 한다’는 것은 話者인 士蔭가 『시경』의 시구를 인용하여 임금에게 성을 쌓지 않는 이유가 결국 나라를 위한 충정임을 애둘러 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宗子是 나라의 성’이라 한 것은 현공의 두 아들 중이와 이오가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변방으로 망명하여 나라를 지키는 城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士蔭는 『시경』의 시구를 인용하여 자신이 성을 쌓는 일에 소홀했던 이유와 나라를 편안히 할 수 있는 방편에 대해 우회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좌전』에는 통치자에 대한 훈계의 방편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시경』의 시구가 이용되는 예가 많이 발견된다. 운문의 發話者와 聽者가 모두 대부·임금 등 최상위 지배층 인물이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견해나 심정을 설득력있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 교훈이나 진리 등을 전달하여 궁극적으로 청자의 생각 및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작용한다. 따라서 유형 (1)에 해당하는 운문들은 ‘聽者指向的’ 성

30) “价人維藩，大師維垣，大邦維屏，大宗維翰，懷德維寧，宗子維城。無俾城壞，無獨斯畏。”

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삽입시는 士蔿는 임금 앞을 물러나와 지은 자작시인데, 이 구절에 해당하는 원문은 “退而賦曰”로 여기서 해당 시구를 이끌어내는 어구 “賦曰”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좌전』에 나오는 104회의 ‘賦’ 중 『시경』의 구절을 읊조리는 관습에 관련된 것이 81회라고 하였다.³¹⁾ 이때의 ‘賦’는 이미 존재하는 시구—대개는 『시경』—의 한 구절을 따와 톤에 변화를 주면서 朗吟한다는 의미³²⁾이며, ‘賦’가 ‘즉석에서 새로운 시구를 짓는다’는 의미로 쓰인 예는 단 2회뿐이라 하였다. 그 2회 중의 하나가 바로 위의 용례이다.³³⁾ 士蔿가 지은 시에서 ‘한 나라에 公子가 셋(“一國三公”)이라는 것은 현공과 두 아들 重耳·夷吾를 가리키며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라 한 것은 성을 견고히 쌓지 않으면 공자의 고소를 당하여 현공의 질책을 받을 것이고, 성을 견고히 쌓으면 원수의 보루를 견고히 쌓는 것이어서 불충이 되어 임금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 지 모르겠다는 말이다.

이보다 앞서 노나라 聲伯이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洹水を 건너다가, 누군가가 자기에게 구슬을 주며 먹이거늘 성백이 눈물을 흘리니 그 눈물이 구슬이 되어 품에 가득히 쌓였다. 성백은 따라가며 “洹水を 건너는데 어떤 이가 나에게 구슬을 주었네. 돌아가자! 돌아가자! 구슬이 내 품에 가득하구나” 하고 노래를 불렀다.

성백은 꿈에서 깬 뒤 무서워서 감히 꿈의 길흉을 점치지 못했는데, 鄭나라에서 돌아올 때 壬申日에 狸脈에 이르러 점을 치게 하며 말하기를, “나는 죽음이 두려워서 감히 점을 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무리가 나를 따르니 3년이나 되었으니,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을 한 그 날 저녁에 죽었다.³⁴⁾ (『成公 17년』) (밑줄은 필자)

위의 예도 지배층에 의해 발해진 自作詩의 예로서 (3)에 해당한다. 서사 속 인물인 성백이 꿈 속에서 노래를 부른 것에 대하여 원문에는 “歌之曰”로 표현되어 있다. 主人物인 성백이 일상 언어나 말이 아닌 노래를 통해 불안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지배층에 의한 자작시—위의 경우는 ‘歌’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는 한 개인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私的 發話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3)의 유형에 속하는 삽입 운문은 ‘話者指向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시경』의 시구가 당시의 상황 및 자신의 생각을 ‘우회적’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창작한 시구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차이를 지닌다. 이같은 차이는 Ⅱ장에서

31) Koo-Yin Tam, “The Use of Poetry in Tso Chuan: an Analysis of the “Fu-Shih” Practice,” University of Washington, Ph.D Thesis, U.M.I., 1988. p.10.

32) Koo-Yin Tam, *ibid.*, p.11. p.21. 논문에는 ‘chant’로 번역하고 있다.

33) *ibid.*, pp.23~24. 논문에는 이를 ‘improvise’로 번역하고 있다. 또 다른 예는 隱公 元年의 기록 중 莊公과 그의 모친인 姜氏가 주고 받은 노래에서 발견된다.

34) 初, 聲伯夢涉洹, 或與己瓊瑰食之, 泣而爲瓊瑰盈其懷, 從而歌之曰, “濟洹之水, 贈我以瓊瑰, 歸乎歸乎, 瓊瑰盈吾懷乎!” 懼不敢占也. 還自鄭, 壬申, 至于狸脈而占之, 曰, “余恐死, 故不敢占也. 今衆繁而從余三年矣, 而無傷也.” 言之, 之莫而卒. (『成公 十七年』, 『좌전』)

언급한, 지배층의 賦詩 풍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士蔭가 인용한 시는 임금 — 현공 — 앞에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상황에서 發해진 것으로 일상언어로 직접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시가 지닌 애매성과 함축성에 기댈으로써 임금과 자신 사이에 형성될 수도 있는 갈등이나 의견대립의 여파를 줄이고자 하는 일종의 언어 책략이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가 지은 자작시 및 성백이 부른 노래는 모두 임금 앞이 아닌 私的인 자리에서 發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책략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이 시를 지어 심정을 직접적으로 토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2)의 예 즉, 서사 속 지배층 인물 — 主 인물 — 에 의해 『시경』 이외의 운문이 인용되는 경우이다.

8월 갑오일에晋나라 임금이 上陽을 포위하고서 卜偃에게 물었다. “우리가 성공하겠는가?” 복언이 대답하였다. “승리할 것입니다.” 임금이 묻기를 “언제쯤이겠는가?” 하니 복언이 대답하였다. “童謠에 ‘병자일 새벽 龍尾星이 태양 가까이 있어 보이지 않을 때에 군복을 씩씩하게 차려 입고서 虢나라의 깃발을 빼앗는다. 鶉火星이 새의 것처럼 펼쳐지고 天策星이 빛을 잃고 鶉火星이 남쪽 하늘에 뜰 때 군대가 승전하여 虢나라 임금이 도망갈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아마 9월과 10월 사이일 것입니다. 병자일 아침에 해는 尾星 자리에 있고 달은 天策星 자리에 있고 鶉火星이 남쪽에 뜨니 반드시 이 때일 것입니다.” (『僖公 5년』)³⁵⁾

위 인용문은晋나라가 虢나라의 길을 빌려 虢나라를 공격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까지 멸망시킨 이야기의 일부인데 이 뒤에는 결과가 노래의 말대로 되었다고 내용이 이어진다. 여기에 인용된 운문은 ‘童謠’인데 진나라 임금이 虢나라 공격을 앞두고 卜偃에게 승세 여부를 물으니 복언은 항간에서 불리는 동요로써 미래의 일을 예측하였고 결과는 동요에서 말한 대로 들어맞았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삽입된 동요에 대하여, 혹자는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가 이처럼 구체적으로 정치와 전쟁의 일을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하며 好事家가 牽強附會하여 만들어 동요에 의탁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표명하기도 한다.³⁶⁾

여기서 동요는 ‘卜偃’에 의해 인용되고 있는데 ‘복언’은 卜筮를 맡은晋나라 大夫³⁷⁾로서 『좌전』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모두 어떤 사안을 두고 미래를 점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동요가 서사 내에서 사건의 결말을 미리 알려주는 ‘예언적 기능’을 행하는 양상은, 『좌전』에 삽입된 2편의 동요 중 다른 한 편의 것³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경우 동요를 인용하는 것은 樂師인 己로 되어 있는

35) 八月甲午，晉侯圍上陽，問於卜偃曰，“吾其濟乎？”對曰，“克之。”公曰，“何時？”對曰，“童謠云，‘丙之晨，龍尾伏辰，均服振振，取虢之旂。鶉之賁賁，天策焯焯，火中成軍，虢公其奔。’其九月，十月之交乎！丙子旦，日在尾，月在策，鶉火中，必是時也。”冬十二月丙子，朔，晉滅虢。虢公醢奔京師。師還，館于虞，遂襲虞，滅之。執虞公及其大夫井伯，以媵秦穆姬，而修虞祀，且歸其職貢於王。故書曰，“晉人執虞公”，罪虞，且言易也。(『僖公 5年』，『좌전』)

36) 정대현 역주, 『春秋左氏傳』·2, 전통문화연구원, 2001, pp.51~52, 주4)와 주7).

37) 정대현 역주, 『春秋左氏傳』·1, 전통문화연구원, 2001, p.481, 주1).

데, 중국 고대사회에서 樂師는 단지 음악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卜筮를 행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지배층에 의한 ‘동요’의 인용은 예언적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지배층이 노래의 原發話者 — 즉, 처음에 노래를 지어 부른 존재 — 라 할지라도 지배층 인물에 의해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예처럼 그들의 목소리로 직접 노래부르는 형태로 발해될 때 그 노래는 지배층의 행태에 대한 비판과 풍자, 지배층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기능을 행하게 된다. 아래의 예들은 (4)에 해당한다.

南蒯가 바야흐로 費 땅으로 가려 할 때 마을 사람들에게 술을 대접하니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노래하기를 “우리 채마밭에 枸杞子が 자랐네. 우리를 따르는 자는 그대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자는 야비한가? 이웃을 배반하면 부끄럽겠지? 아서라 그리 말아라.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로다”라고 하였다. (『昭公 12년』)³⁹⁾

가을에 齊·宋 두 나라 임금이 洮에서 회합한 것은 범씨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衛나라 임금은 부인 南子를 위하여 송나라 공자 朝를 오게 했다. 洮 지방에서 회합이 열려 衛나라 태자 蒯聵는 孟 땅을 齊나라에 헌상하려고 송나라의 시골을 지나는데 시골 사람이 노래하기를 “암 돼지를 이미 다잡았거늘 어찌 수돼지를 돌려 보내지 않는가?”라고 했다. 그는 부끄럽게 생각했다. (『定公 14년』)⁴⁰⁾

겨울 10월에 공자 嘉, 공자 駒, 공자 黔은 위나라로 도주하고, 공자 鉏와 공자 陽生은 노나라로 도망쳐 왔다. 萊 땅 사람이 이를 노래하기를, “景公이 죽었어도 장례에 참례하지 못하고, 三軍의 일에 대해서도 謀計에 참여하지 못하다. 많은 공자들이여, 어디로 갈 것인가”라 하였다. (『哀公 5년』)⁴¹⁾

가을 8월에 애공은 齊·邾나라 임금들과 顧에서 회맹했다. 이때 제나라 사람들은 노나라 임금이 제나라 임금에게 稽首의 예를 갖추지 않으므로 이에 관해서 노래하기를, “노나라 사람들의 완고함이며, 수 년이 지나도록 稽首로 답례할 줄 모르니, 우리로 하여금 遠行하게 했도다.

38) 「昭公 25年」 “有鸛鵒來巢”라는 經文에 대한 서술 부분에 나온다. 거기에 인용된 동요는 ‘앵무여, 앵무여! 임금은 도망다니며 옥을 당하네. 앵무의 것이여! 임금은 시골에서 말을 치네. 강충강충 뛰는 앵무여! 임금은 먼 곳 乾侯로 서 바지저고리가 없네. 앵무의 등지여! 멀고 먼 곳에서 昭公은 장사지내고 定公은 잘난 채하네. 앵무여, 앵무여! 갈 때는 노래하고 올 때는 뜻을 하네.’(“鸛之鵒之, 公出辱之. 鸛鵒之羽, 公在外野, 往饋之馬. 鸛鵒蹀蹀, 公在乾侯, 微褰與襦. 鸛鵒之巢, 遠哉遙遙, 耦父喪勞, 宋父以驕. 鸛鵒鸛鵒, 往歌來哭. 童謠有是, 今鸛鵒來巢”)라는 것으로 이런 기이한 현상을 보고 樂師인 己가 장차 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언하였다.

39) 將適費, 飲鄉人酒. 鄉人或歌之曰, “我有圃, 生之杞乎! 從我者子乎, 去我者鄙乎, 倍其鄰者恥乎! 已乎已乎! 非吾黨之土乎!”(「昭公 十二年」, 『좌전』).

40) 秋, 齊侯, 宋公會于洮, 范氏故也. 衛侯爲夫人南子召宋朝. 會于洮, 太子蒯聵獻孟于齊, 過宋野. 野人歌之曰, “既定爾婁豬, 盍歸吾艾窶?”(「定公 十四年」, 『좌전』).

41) 冬十月, 公子嘉, 公子駒, 公子黔奔衛, 公子鉏, 公子陽生來奔. 萊人歌之曰, “景公死乎不與埋, 三軍之事乎不與謀, 師乎師乎, 何黨之乎?”(「哀公 五年」, 『좌전』).

아는 것이라곤 周禮뿐이로다. 稽首하기를 즐겨하지 않아, 우리 제나라와 주나라를 걱정하게 하도다”라 하였다. (「哀公 21년」)⁴²⁾ (밑줄은 필자)

첫 번째 인용에서 삽입된 운문은 南蒯가 家臣의 신분으로 왕이 되고자 반란을 꾀하자 그것을 눈치챈 마을 사람이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른 것이고, 두 번째 인용의 운문은 宋의 시골 사람이 위나라 靈公의 부인 南子, 그리고 남자가 위나라로 시집오기 전 淫通했던 宋의 공자 朝를 각각 ‘암돼지’와 ‘수돼지’에 견주어 衛의 태자 괴외가 듣게끔 부른 노래이다. 세 번째 인용문은, 齊 景公은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죽자 여러 庶公子들 중 荼를 총애하여 그를 후계자로 삼고 여러 공자들은 萊 땅에서 살도록 했다는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인용문에 삽입된 萊 땅 사람의 노래는 이같은 상황에 배경을 두고 있다. 네 번째 인용문의 경우 노나라 애공이 齊·邾나라 임금들과의 회합에서 拜禮만 하고 稽首의 예는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나라 사람들이 비난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내용이다.

이 예들을 보면 노래를 부른 주체는 ‘鄉人’ ‘野人’ ‘萊人’ ‘齊人’라 하여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백성 중의 ‘어떤 사람’이다. 이에 비해 『시경』의 시구를 인용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명시되며 대부분 임금이나 경대부, 고위의 신하 등 지배층에 속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 이름없는 백성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의미를 헤아리는 궁극적인 청자는 지배층 인물이다. 즉, 이 노래들은 발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배층 인물의 귀에 들어가게 하려는 의도에서 불려진 것이다. 따라서 유형 (4)에 속하는 삽입 운문은 ‘聽者指向的’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내용면에서 볼 때 이름없는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는 대개 지배층 인물의 언행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즉, 그들은 자신들에 관한 내용을 노래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층 사람들에 관한 것에 초점을 맞춰 노래부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지배층 인물이 삽입 운문의 發話者가 되는 경우는 『시경』의 시구를 인용하든 아니면 인물이 새로 짓든 간에, 그리고 느낌이나 생각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든 직접적으로 드러내든 간에 지배층 인물 자신들에 해당되는 내용을 읊는다. 결국 운문의 발화자가 일반 백성이든 지배층이든 간에 모든 운문의 지향점 내지 초점은 지배층의 생활과 언행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4)유형의 경우 노래가 불려진 장소는 백성들의 삶의 공간이나 그 연장에 있는 室外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궁중이나 정치·외교적 상황과 관련된 公的인 장소가 배경이 되는 『시경』의 경우와는 구분이 된다. 고대의 역사란 지배층을 둘러싼 역사이므로 『좌전』에서 사건을 전개하는 주동 인물은 모두 지배층이며, 백성은 사건 전개에 부수되는 존재이다. 그러나 서사 속 副 인물인 백성들은 지배층의 행태를 풍자·비판하거나 미래의 사건의 향방을 미리 가늠케 해주는 존재, 지배층에게 교훈과 경계심을 일깨워 주는 존재로 기능한다. 또한 때때로 민심은 지배층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백성이 부른 노래이면서 발화의 초점이 지배층 인물로 향해 있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런 현상인 것이다.

42) 秋八月, 公及齊侯, 邾子盟于顧. 齊人責稽首, 因歌之曰, “魯人之皐, 數年不覺, 使我高蹈, 唯其儒書, 以爲二國憂.” (「哀公二十一年」, 『좌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일반 백성의 노래가 아닌 『시경』의 시구에 대하여 ‘歌’라는 말을 쓴 경우이다.

衛 獻公이 孫文子와 甯惠子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명하니, 두 사람은 모두 朝服을 입고 조정으로 나아가 명을 기다렸으나, 헌공은 날이 저물도록 이들을 부르지 않고 園囿에서 기러기 사냥만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그 곳으로 찾아가자 헌공은 사냥할 때 쓰는 모자도 벗지 않은 채로 두 사람과 말을 하니 두 사람은 노하였다. 손문자가 戚邑으로 가서 그 아들 孫蒯를 보내어 入朝하게 하니 헌공이 손괴에게 술을 접대하며 大師에게 『詩經』, 「巧言篇」의 卒章을 노래하게 하였다(a). 大師가 사양하니 師曹가 자신이 하겠다고 청했다. 이보다 앞서 헌공이 사조로 하여금 자기의 애첩에게 거문고를 가르치게 하였을 때 사조가 그녀에게 매를 치니, 헌공이 노하여 그에게 볼기 삼 백 대를 친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사조는 巧言詩를 노래하여(b) 손괴를 노하게 하여 헌공에게 복수하고자 한 것이다. 헌공이 그에게 노래하게 하니(c) 그는 드디어 이 시를 노래 불렀다(d). (『襄公 14년』⁴³⁾ (밑줄은 필자)

여기서 ‘大師’는 음악을 맡은 樂官을 가리키며 ‘師曹’는 樂工의 이름이다. 밑줄친 부분의 원문은 각각 “使大師歌巧言之卒章”(a) “師曹欲歌之”(b) “公使歌之”(c) “遂誦之”(d)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歌’나 ‘誦’은 악기 반주에 맞추어 곡조에 따라 노래부르는 형태의 연주를 말한다.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악관이고 위 이야기에서는 ‘사조’라는 인물이 노래를 부른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 볼 때 음악가가 개입하여 『시경』의 시구를 연주하는 상황일 때는 ‘賦’ 대신 ‘歌’라는 말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⁴⁾ 맨 마지막의 ‘誦’ 또한 ‘歌’와 마찬가지로 이 말이 『시경』이 대상이 될 때와 일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대상이 될 때 그 노래되는 방식이 달라진다.

겨울 10월에 邾人과 莒人이 郕國을 토벌하니 臧紇이 중국을 구원하기 위해 주나라를 침공하였다가 狐貍에서 패배하였다. 戰死者를 맞이하는 國人들이 모두 髷머리⁴⁵⁾를 하였다 이때부터 노나라에서는 髷머리를 하는 풍속이 시작되었다. 국인들이 풍자하는 노래를 부르기를, “여우 갓웃 입은 臧紇이여, 아군을 狐貍에서 패하게 했네. 우리 임금 너무 어려 난쟁이를 將帥로 보 내셨네. 난쟁이여, 난쟁이여, 아군을 邾軍에게 패하게 했네.”라고 하였다. (『襄公 4년』⁴⁶⁾ (밑줄은 필자)

43) 衛獻公戒孫文子、甯惠子食，皆服而朝，日旰不召，而射鴻於囿，二子從之，不釋皮冠而與之言。二子怒。孫文子如戚，孫蒯入使，公飲之酒，使大師歌巧言之卒章。大師辭。師曹請爲之。初，公有嬖妾，使師曹誨之琴，師曹鞭之。公怒，鞭師曹三百。故師曹欲歌之，以怒孫子，以報公。公使歌之，遂誦之。(『襄公 十四年』, 『좌전』)

44) Koo-Yin Tam, *ibid.*, p.11.

45) 髷는 삼을 머리카락과 합쳐서 묶는 것이다. 喪을 당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喪服을 갖추 수가 없어서 髷머리만을 하였을 뿐이다. 정대현 역주, 『春秋左氏傳』·4, 전통문화연구원, 2001, p.50 주2).

46) 冬十月，邾人、莒人伐郕，臧紇救郕，侵邾，敗於狐貍。國人逆喪者皆髷，魯於是乎始髷。國人誦之曰，“臧之狐貍，敗我於狐貍。我君小子，朱儒是使。朱儒朱儒，使我敗於邾。”(『襄公 四年』, 『좌전』)

밑줄 부분의 원문은 “國人誦之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誦’은 악기 반주나 악관이 개입된 노래가 아닌 맨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를 가리킨다. 이 예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래부르는 주체가 일반 백성일 때 이름을 표기하지 않고 ‘國人’으로 처리되어 있고 노래의 내용이 자신들에 관한 것이 아닌 지배층에 관련된 내용 — 특히 그들의 행태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내용 — 이며, 노래가 불려지는 장소가 궁중과 같은 公의 공간이 아닌 개방된 실외 공간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7)의 유형, 즉 ‘군자’나 ‘중니’ 등 논평자에 의해 『시경』이 인용되는 경우 운문이 행하는 기능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이에 대해 논하기 전에 먼저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논평을 하는 ‘군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보통 덕과 학식을 갖춘 인물을 君子라 칭하는데 『좌전』의 경우 첫째 좌전 작자와 同 時代이거나 前 時代의 인물, 둘째 공자, 셋째 작자 자신의 세 경우로 좁혀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중 ‘군자’가 ‘공자’를 가리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공자는 말했다. “능히 자신의 과오를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은 군자이다. 『시경』에 ‘군자를 본 받는다’고 하였으니 孟僖子は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昭公 7년』)⁴⁷⁾

『좌전』에는 위와 같이 공자의 이름으로 논평이 행해지는 예가 28회⁴⁸⁾ 발견되고, 이 중 『시경』이 인용된 예는 6회이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공자를 가리키는 어구를 사용하여 논평을 하면서 굳이 공자의 말을 ‘君子曰’로 대체할 필요는 없었다고 본다. 더구나 ‘논평’의 기능은 서술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評價하고 議論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있는 존재의 말이나 믿을 만한 서책에서 인용하여 논평하는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자의 말이라면 儒家의 입장에서는 검증이 필요없는 절대적 권위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군자로 대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논평을 함에 있어 권위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좌전』의 작자가 이름도 성도 모를 어떤 ‘군자’의 말을 내세웠을 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아래의 예는 ‘군자’가 同 時代나 前 時代의 다른 인물이 아닌, 바로 작자 자신을 가리킨다는 증거가 된다.

군자는 말한다. “秦 穆公이 盟主가 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그 이유는 죽으면서도 백성을 버렸기 때문이다. 옛날의 先王들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오히려 後人에게 법도를 남겼는데 하물며 백성에게서 善人을 빼앗아간다는 말인가? 『시경』에 ‘선인이 죽으니 나라가 병든다’고 하였으니 이는 나라에 선인이 없음을 말한 것인데 穆公은 어째서 善人을 빼앗아갔단 말인가? (中略) 군자는 이로써 秦나라가 두 번 다시 東征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文公 6년』)⁴⁹⁾ (밑줄은 필자)

47) 仲尼曰 “能補過者, 君子也. 詩曰 ‘君子是則是效’, 孟僖子可則效已矣.” (『昭公 7年』, 『좌전』).

48) “仲尼曰”이 23회, “孔子曰”이 5회이다.

49) 君子曰, “秦穆之不爲盟主也宜哉! 死而棄民. 先王違世, 猶詒之法, 而況奪之善人乎? 詩曰, ‘人之云亡, 邦國殄瘁’, 無善人之謂. 若之何奪之? (中略) 君子是以知秦之不復東征也.” (『文公 6年』, 『좌전』).

위 예문에는 ‘군자’가 두 번 나오는데 만일 ‘君子’가 작자 아닌 다른 인물이라면, 맨 끝부분의 ‘군자는 이로써 秦나라가 다시 東征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좌전』의 작자가 어떻게 알고 인용을 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본고가 참고하고 있는 세 가지 번역본⁵⁰⁾ 모두 첫머리에 나오는 ‘군자’의 논평 부분을 ‘中略’ 앞까지로 보고 있고 ‘中略’ 이후의 부분을 별도의 구절로 처리하고 있어, 서술상 앞뒤 문맥의 연결이 부자연스럽다. ‘秦나라가 두 번 다시 東征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을 작자로 보고 이 부분까지를 논평 부분으로 읽으면 문맥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군자는 말한다. “『시경』에 이른바 ‘흰 玉의 티는 오히려 갈아 없앨 수 있지만 말의 결함은 어찌할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荀息이 이와 같은 점이 있다.” (『僖公 9년』)⁵¹⁾

군자는 말한다. “宋의 宣公은 사람을 꿰뚫어 볼 줄 알았다고 할 수 있다. 아우 穆公을 세워 서 자신의 아들 殤公이 마침내 즉위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 遺命이 道義에 맞았기 때문이다. 「商頌」에 ‘殷나라의 왕위 계승은 모두 도의에 합당했기 때문에 많은 복록을 받았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이른 것이다.” (『隱公 3년』)⁵²⁾

위 두 예문은 논평자인 ‘군자’가 작자 자신이라는 것을 좀더 확실하게 보여 준다. 「僖公 9년」條의 경우, 이 앞에는 임금 앞에서 약속을 한 번 잘못된 탓에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大夫 荀息에 관한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고 인용된 『시경』 또한 말의 실수는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인용문 끝부분의 ‘荀息이 이와 같은 점이 있다’(“荀息有焉”)고 한 언급으로 미루어 이 부분을 말한 사람은, 앞서 서술된 荀息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존재여야 한다. 만일 ‘군자’가 작자 아닌 다른 인물이라면, 앞서 어떤 내용이 서술되었는지 알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식의 일에 대해 논평하는 ‘군자’는 곧 작자 — 아니면 작자의 분신 — 라고 결론지을 수 있게 된다. 「隱公 3년」條의 예도 마찬가지다. 논평자인 군자는 끝부분의, ‘이는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이른 것이다’(“其是之謂乎”)에서 ‘이런 경우’(“是”)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며 그는 다름 아닌 『좌전』의 작자인 것이다.

『좌전』에서 논평부는 서술된 사건에 대한 작자의 견해나 입장을 표명하고, 서사 속 인물에 대해 褒貶을 하는 등 ‘議論’과 ‘論評’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좌전』의 작자는 ‘군자’와 ‘공자’를 내 세워 이같은 의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자신을 ‘군자’로 나타낸 것은 당시에는 서술자 내지 기록자가 자신을 ‘나’라는 1인칭으로 나타내는 기법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술자라 ‘나’로서 자신을 지칭하는 양상은 唐代 傳奇에서 발견된다. 논평부는 앞서 서술된 사건이나 인물의 행적에 대해 작자가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과

50) 주 24) 참고.

51) 君子曰, “詩所謂‘白圭之玷, 尚可磨也’斯言之玷, 不可爲也’荀息有焉.”(『僖公 九年』, 『좌전』).

52) 君子曰, “宋宣公謂知人矣. 立穆公, 其子饗之, 命以義夫! 商頌曰, ‘殷受命咸宜, 百祿是荷’, 其是之謂乎!”(『隱公 三年』, 『좌전』).

권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평부에서 『시경』 구절을 것처럼 빈번하게 인용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러므로 논평부에는 『시경』뿐만 아니라 『書經』, 『易經』과 같은 경서의 인용이 쉽게 발견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군자는 말한다. “의복이 신분에 맞지 않는 것은 몸의 재앙이다. 『시경』에 ‘저 사람이여! 그 의복이 걸맞지 않다!’라고 하였으니 子臧의 의복 또한 신분에 맞지 않는다. 또 『시경』에 ‘스스로 이런 근심을 끼쳤도다!’라고 하였으니 子臧과 같은 사람을 두고 한 말이다. 『夏書』에 ‘大地는 化育을 공평하게 돕고 하늘은 그 배움을 이룬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天地가 잘 조화되는 것을 말한 것이다.” (『僖公 24년』)⁵³⁾

위 예문의 “君子曰” 앞에는 물총새 깃으로 만든 관을 좋아했던 子臧에 관한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다. 군자는 자장의 복장이 그의 신분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이 논평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경』을 두 번⁵⁴⁾ 인용하고 거기에 『書經』, 『夏書』의 구절까지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좌전』에 삽입된 운문의 다섯 가지 유형과 서사 내에서의 기능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사 속 지배층 인물이 『시경』을 인용한 경우’는 대화 속에서 자신의 견해나 입장을 완곡하게 전달하여 의도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기능하고, 둘째, ‘서사 속 지배층 인물이 『시경』 이외의 운문을 인용한 경우’는 2편의 童謠가 인용된 경우인데 여기서 동요는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기능을 행한다. 셋째, ‘서사 속 지배층 인물이 自作詩를 발하는 경우’는 인물이 자신의 심정이나 감회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기능을 행하며, 넷째 ‘서사 속 피지배층 인물이 지어 부른 노래인 경우’ 운문은 지배층의 행태나 그들이 벌인 사건에 대해 비판·풍자하거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행한다. 다섯 째, ‘논평자에 의해 『시경』이 인용되는 경우’의 운문은 앞에서 서술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작자 자신의 견해와 판단을 피력함에 있어 권위와 타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행한다. 앞의 네 경우 운문은 인물들의 ‘대화’의 일부로 작용하며, 마지막의 경우는 서술된 사건에 대한 ‘논평’과 ‘의론’의 기능을 담당한다.

IV. 『春秋左氏傳』과 後代の 散·韻 혼합담론 : 맺음말을 겸하여

지금까지 春秋三傳 중 하나인 『좌전』을 대상으로 그것이 지닌 산·운 혼합담론으로서의 성격을

53) 君子曰, “服之不衷, 身之災也. 詩曰, ‘彼己之子, 不稱其服.’ 子臧之服, 不稱也夫! 詩曰, ‘自詒伊慝’, 其子臧之謂矣. 夏書曰, ‘地平天成’, 稱也.” (『僖公 二十四年, 『좌전』).

54) 앞의 것은 『曹風·侯人』에서, 뒤의 것은 『小雅·小明』에서 인용하였다.

究明해 보았다. 그간 산문과 운문을 섞어 하나의 담론을 구성하는 방식의 기원을 오직 唐代에 성행한 강창문학에서 찾는 一元論의 관점이 지배적이었는데 본고에서는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多元的 始原을 모색하는 입장에 서서 『좌전』을 혼합담론의 한 ‘祖宗’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 결과 『좌전』은 필자가 분류한 혼합담론의 6가지 유형 중 ‘주석형’과 ‘시삽입형’ —구체적으로는 ‘서사체 시삽입형’—의 祖宗 내지 始原으로, ‘열전형’의 雛形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이 점을 종합하면 결국 『좌전』은 이 세 유형의 요소를 모두 지니는 ‘복합형’ 혼합담론이 되는 셈이다. 또한 『좌전』은 산문과 운문의 교직으로 담론이 구성되는 최초의 예가 된다는 점에서, 모든 유형의 혼합담론을 통틀어 산·운 혼합담론의 효시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좌전』에서 형성된 (나-1) 방식의 주석형 혼합서술, 즉 산문으로 된 본문에 대한 주석문 이 산·운 결합으로 이루어진 혼합서술 방식은 후대에 『水經注』나 우리나라의 『新增東國輿地勝覽』⁵⁵⁾ 등에 그 영향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좌전』과 후대 담론들의 관계를 ‘영향’으로 볼 것인가 ‘발전·계승’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우연한 ‘유사성’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듯하나,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영향’의 관계로 보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좌전』이 지닌 열전형 혼합담론으로서의 면모는 아직 불완전한 것으로 본격적인 양상은 漢代 劉向의 『열녀전』과 『열선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열녀전』의 찬술 시기가 좀 더 앞서므로 이를 열전형 혼합담론의 효시로 볼 수 있다. 『二十四孝』 우리나라의 『화랑세기』, 『삼강행실도』에서 그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며 唐의 승려 義淨이 찬술한 『大唐西域求法高僧傳』⁵⁶⁾은 부분적으로 열전형의 모습을 보인다.

한편 ‘서사체 시삽입형’ 혼합담론의 시원으로서의 『좌전』은 유향이 지은 筆記類 故事選集이라 할 『新序』와 『說苑』의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두 책에 실려 있는 짤막짤막한 故事들 또한 ‘서사단편’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 고사들을 소개하는 중에 시편들을 삽입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여기에 삽입된 시들은 『좌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야기 속 인물이 『시경』의 시구를 인용하는 양상을 취한다. 인물에 의해 새로 지은 시가 삽입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搜神記』나 『拾遺記』 등 위진남북조시대에 성행한 ‘志怪’를 보면 기존의 시구가 인용되기 보다는 이야기 속 인물이 지은 시구가 증가하는 양상이 현저해진다. 이같은 변화는, 집단보다는 개인을 중시하고, 기존의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유로움을 추구하며 시문을 지을 때 기존의 담론에 의존하기보다는 독창성을 강조했던 이 시대 사대부층의 인식 변화와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본다.⁵⁷⁾ 개

55) 이에 대해서는 졸고, 「地理空間의 談論化 과정에 대한 一考察」, 『정신문화연구』 통권 114호, 2009. 3. 참고.

56) 『대당서역구법고승전』은 당의 승려 의정이 인도를 여행한 뒤 기록한 기행문으로 여타 기행문과는 달리 그 곳에서 전해 들은 중국·신라·고구려의 渡竺僧에 관한 傳記를 곁들이고 이를 찬양하는 시를 곁들이고 있다. 그리고 군데 군데 여행자로서 느끼는 심정을 토로한 시가 삽입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열전형과 비서사체 시삽입형이 복합된 산·운 혼합담론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기행문으로서의 성격에 대한 것은 졸고, 「『往五天竺國傳』에 대한 비교문학적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66집, 2008. 9. 참고.

57) 요시자와 다다오, 임대회·이주현·이윤화 외 옮김, 『육조 사대부의 정신생활』, 『위진남북조史』, 서경, 2005.

성을 가진 한 개인으로서 文人이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시기인 점과 이처럼 지괴 작품 속에 창작시가 삽입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현상인 것이다. 『시경』의 시구를 읊조리기보다는 창작 시편을 이야기 속에 삽입하는 것이 그들의 취향에 더 부합했을 것이다.

이같은 양상은 唐代 傳奇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이 시기에는 문인들간에 ‘行卷’ 또는 ‘溫卷’으로 불리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과거시험 전에 유력자에게 자신들의 文才를 보여 실력을 인정받아 벼슬길에 나아가는 데 유리한 계기를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시험 과목으로 부과된 시문 유형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실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문인들은 다양한 방식을 도모했는데 그 중 하나가 시와 문, 이야기 등 다양한 장르를 섞어 답론을 구성하는 서술 방식의 도입이었다. 그러나 傳奇의 지배적 특징으로 부각되는 산·운 혼합서술 문체를 唐代의 과거제도와 관련된 시대 풍속에서 돌출한 갑작스런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좌전』 이래로 이어져 온 산·운 혼합의 전통이 바탕이 되어 여기에 當代의 시대적 요소가 새로운 동인으로 부가되어 상호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서사체 시삽입형 답론들에서 우리는 명백한 『좌전』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이들은 지식인층을 작자·독자로 한 文言體 ‘讀物’로서, 같은 서사체 시삽입형이라 하더라도 講經文이나 變文, 宋元 話本, 明代의 擬話本, 그리고 회장체 소설처럼 연행적 관습의 흔적이 뚜렷한 일련의 口語體⁵⁸⁾ 답론들과는 분명 큰 차이가 있다. 讀物과 演行物 — 혹은 娛樂物 — 로서의 차이를 필자는 ‘左傳系’와 ‘講唱系’로 구분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면관계상 강창계 서사체 시삽입형 답론들에 대한 논의는 다른 기회를 기약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竹內照夫 譯註, 『春秋左氏傳』, 東京: 集英社, 1974 · 1983.

『春秋左氏傳』, 『完譯版 四書五經』 11, 삼성문화사, 1993.

정대현 역주, 『春秋左氏傳』, 전통문화연구원, 2001.

성백효 역주, 『詩經集傳』, 전통문화연구회, 1993.

2. 논저

김학주, 『中國文學概論』, 신아사, 1992.

——, 『中國古代文學史』, 명문당, 2003.

김 현, 『한국문학의 위상/문학사회학』(『김현 문학전집』 1), 문학과 지성사, 1991 · 2005.

58) 중국 답론을 기준으로 한다면 ‘口語體’ 대신 ‘白話體’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이다.

- 서경호, 『중국소설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2006.
- 신은경, 「散 · 韻 혼합담론의 유형과 양상 : 『秋齋紀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8집, 2008.
- _____, 「『往五天竺國傳』에 대한 비교문학적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66집, 2008.
- _____, 「地理空間의 談論化 과정에 대한 一考察」, 『정신문화연구』 통권 114호, 2009.
- 루샤오팅, 조미원 · 박계화 · 손수영 옮김, 『역사에서 허구로 : 중국의 서사학』, 길, 2001.
- 요시가와 다다오 임대희 · 이주현 · 이윤화 외 옮김, 「육조 사대부의 정신생활」, 『위진남북조史』, 서경, 2005.
- M. 바흐친, 『도스토예프스키 시학』, 정음사, 1988.
- 츠베탕 토도로프, 최현무 옮김, 『바흐친 : 문학사회학과 대화이론』, 까치글방, 1987.
- Tam, Koo-Yin, "The Use of Poetry in Tso Chuan: an Analysis of the "Fu-Shih" Practice, University of Washington, Ph.D Thesis, U.M.I., 1988.
- Tso-chiu Ming, *The Tso Chuan: Selections from China's Oldest Narrative History*, trans. Burton Wats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9.
- Wang, John C. Y, "Early Chinese Narrative: The *Tso-chuan* as Example," *Chinese Narrative*, ed. Andrew H. Plaks, with a foreword by Cyril Birc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 이 논문은 2009년 11월 30일 투고되어
 2009년 12월 21일에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0년 1월 1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0년 1월 15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A Study on the *Chunchu Jwassijeon* As an Origin of the Prose-Verse Mixed Styled Discourse

Shin, Eun-kyung*

This article aims at exploring textual characteristics of the *Chunchu Jwassijeon* as one of the origins of prose-verse mixed styled discourses. Unlike the preceding studies on the issue, which have considered the *Gangchang*(講唱) texts found in the *Donwhang* cavern in China as the origin of the prose-verse mixed styled discourse, this article considers the *Chunchu Jwassijeon*, one of the three commentary texts on the *Chunchu* which is annals of the No(魯), as an origin of this type of discourses. Of 6 types of mixed styled discourses, the *Chunchu Jwassijeon* concerns the “type of verse-inserted in a narrative”: this type is that verses are inserted into a narrative prose, thereby constructing a discourse. Moreover, the *Jwajeon* is notable in that it can be also considered both as the “annotative type” and partially as the “type of biographies.”

The *Jwajeon* as verse-inserted type of mixed styled discourses has characteristics as follows. First, the verses inserted into the *Jwajeon*, are mainly ones cited from the *Shigyung* rather than ones newly composed by the characters. Secondly, the contents of prose and verse are not duplicated and the two parts interact on the basis of syntagmatic relationship, thereby proceeding to complete a narrative.

The *Jwajeon* as an origin of type of verse-inserted in a narrative influenced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later mixed styled discourses such as the *Sinseo*(新序) and the *Seolwon*(說苑) by Yu Hyang in the Han Period, the *Jigoe*(志怪) in the Six Dynasties, and the *Jeongra*(傳奇) in the Tang Dynasty, all of which can be differentiated from the *Gangchang* texts classified into the same category of the “type of verse-inserted in a narrative” as the *Jwajeon*. This article demarcated these two subcategories respectively as the lineage of the *Jwajeon* and that of the *Gangchang*.

[Key Words] Chunchu Jwassijeon, prose-verse mixed styled discourse, type of verse-inserted in a narrative, annotative type, type of biographies, Shigyung, lineage of Jwajeon, lineage of Gangchang

* Professor, Woosuk University